<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어과 심미연

이 책을 읽고 첫 번째로 저자의 지인인 미혼의 여성은 동료들의 ‘존중’을 받기 위해 회의에서 꼭 결혼반지를 낀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고 무엇보다 놀랐습니다. 왜 결혼 반지를 껴야지만 여성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저자의 지인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만든 나이지리아 국민들을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남자들의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가던 클럽을 일주일에 한 번 가기로 했다는 말에서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부인도 하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결혼을 하면 여성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남성들이 자신의 부인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중국 등과 함께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사상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200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에 대한 선호가 강했지만, 2017년 현재는 여아에 대한 선호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것으로 남녀평등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차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지”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라 서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딱히 첫째라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생 밥 차려주는 일 등은 저를 시키시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의 일은 동생에게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세대는 남녀의 역할을 구분 짓는 것이 당연한 세대였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오셨으니까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은 밥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밥을 안 먹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은 늦게라도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는 둘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오시니까 집안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는 꼭 집안일을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래서 하시는 말씀이셨겠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니도 자신이 불평등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세대를 비난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틀린 사람으로 취급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오른손 잡이였던 사람이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도 쉽게 왼손잡이로 바뀌지 않듯이, 그러한 문화로 50년 이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직 20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고, 비교적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성교육 강사 신연정’ 편을 보고 알게 된 것인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부터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자는 터프하고 돈 많고 리드하는 인상이지만, 여자는 이끌리고 순응하며 소극적인 것을 사랑으로 포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해진 성 역할을 학습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이 터프하게 리드하는 장면을 보면 설레고 하는 것들은 성별로 차별을 받아 생긴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한 편,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대리만족을 해주기 때문에 팬들이 열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드라마에서 종종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하는 남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장면들 역시도 주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밥상 차려주는 남자”라는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내용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목에서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소한 것에서 불평등한 일인데도,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스웨덴에서 모든 고등학생들의 성평등 교재로써 이 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